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우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민성동로 55, 8층 805호(민성동, 오케이타워1기)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6년 1월 27일(화) 제 3254호

전주 올림픽 '청신호'...타당성 문턱 넘었다

사전타당성 B/C 1.03 '경제성' 확보
국민 82.7% 찬성...도민 87.6% 지지
사업비 6309억 원 기준 시설 활용 설계
내달 6일 도의회 동의안 의결 추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경제성이 입증되고 10명 중 8명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확보했다.

전북도는 26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비용편익분석(B/C) 결과가 1.03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B/C 분석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1 이상이면 경제성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 조사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0개월 간 수행한 법정 절차다. 이로써 전북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첫 번째 공식 판문을 통과하게 됐다.

B/C 1.03이라는 수치는 전주 하계올림픽이 단순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사를 넘어 국가적 투자 가치가 충분한 프로젝트임을 의미한다. 지방도시 전주가 국제적 규모의 메가 이벤트를 주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로 풀이된다.

총사업비는 6조 9,086억 원으로 산정됐다. 이 중 시설비는 1조 7,608억 원(25.5%), 운영비는 5조 1,478억 원(74.5%)을 차지한다. 도는 경기장 신축을 배제하고 기존 체육시설 개보수, 임시시설 설치, 건립 예정 시설 활용을 통해 대회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설비보다 운영비 비중이 높은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전체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경기장은 총 51개로 구성하고, 도내 32개와 타 지역 19개에 분산 배치하는 전략적 분산 개최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IOC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올림픽 지침인 '올림픽 야전다 2020+5'에 부합하며 지방도시의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재정 효율성과 경기 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주권에는 개·폐회식과 메달수가 가장 많은 수영, 국민 선호도가 높은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26일 열린 전주 올림픽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김관영 지사와 김아람 쇼트트랙 선수, 서승재 배드민턴 선수, 최철순 전 전북현대 축구선수 등 참석자들이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주요 인기종목인 양궁, 탁구, 배드민턴, 태권도, 축구 결승 등을 집중 배치해 전주가 올림픽의 사실상 중심 무대임을 명시했다. 육상, 테니스, 조정, 카누 등 일부 종목은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경기장 확보와 인프라 여건을 고려,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에 분산배치 했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약 4주 간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전 국민 82.7%, 전북도민 87.6%가 전주 올림픽 유치를 찬성했다.

조사는 전국 가구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1,100명과 전북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찬성 이유로는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전북 51.1%·전국 39.2%) ▲국가 이미지 제고(전북 29.0%·전국

20.2%) ▲국내 스포츠 교류 활성화(전북 13.5%·전국 14.5%) 등이 꼽혔다.

이는 IOC가 개최지 선정 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국민 지지' 항목에서 전주가 뚜렷한 강점을 갖췄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미국 보스턴과 독일 함부르크는 국민 지지 부족으로 유치를 중도 철회한 바 있어, 이번 압도적인 찬성률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개최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1988 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지방도시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해 수도권 중심 대형 국제행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과도한 시설 투자를 지양하고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지속가능하고 재정 효율적인 모델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겠다는 전략이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전주 올림픽이 가져올 다양한 효과도 제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과 경기를 직접 즐길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 전문체육 발전, 스포츠산업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도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026년 2월 6일 전북도의회에 '올림픽 유치 동의안'의 결을 받고, 이후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유치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정부 승인 절차로 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는 것이다.

/장정철 기자

민주·혁신 통합, 당내 반발 지속

민주당 친명계 중심 반발 속
조국혁신당 "흡수통합 불가"
조승래 "당명은 민주당이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당내 친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에서도 흡수통합 절대 불가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혁신당은 26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전달 사실상 조국당을 흡수하는 내용의 '흡수합당' 방침을 밝힌데 반발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은 매우 전격적인 것이었다. 통합논의의 출

발점"이라며 "혁신당은 통합이 당의 정치적 DNA를 보전·확대하는 가치연합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조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흡수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러한 오해가 형성되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2면에서 계속>

장연국 도의원 "지방 주도 성장 전북서 현실로 만들겠다"

민주당 대표연설서 6대 전략 제시
과지컬 AI·로봇·가점·광역철도망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연국 대표의원은 26일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전북의 지도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을 도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연국 대표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12.3 내란의 잔재 청산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이 전북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6대 핵심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장연국 의원은 전북을 '과지컬 AI·제조로봇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단순 기업 지원을 넘어 사람에게 투자하는 '고용 연계형 전북형 공공조달 쿠퍼티브' 도입을 촉구하며, 지역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공공조달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을 RE100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수도권 일극 집중은 국가 안보를 위협



장연국 도의원

하는 도박"이라며,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용수 공급 여건이 풍부한 전북이 대한민국 반도체 전략의 핵심 대안임을 분명히 했다.

전북의 공간 구조를 재편할 '전주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도 제시됐다. 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잇는 제1호선을 축으로 친환경 첨단 교통수단을 결합하고, 전라선 고속화 및 서해안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장 의원은 ▲한국투자공사 및 7대 공제회 유치를 통한 글로벌 금융도시 도약,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포함한 K-컬처 관광벨트 조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책임지는 전북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장연국 의원은 교육 행정과 관련해 "교원과 교육공무원 인사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김이재 도의원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중심지 육성해야"

임항료 감면 등 포트세일즈 제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26일 제4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의 제8대 기항지 선정에 따른 크루즈 산업 육성방안 마련 및 철저한 사전대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만을 대한민국 8번째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기항지 선정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10만 톤급 이상의 대형 크루즈선을 유치할 수 없다"며, "준비 여하에 따라 새만금은 스쳐 지나가는 항구가 될 수도 머물고 싶은 명품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이재 도의원

김이재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크루즈 전용 부두 및 CIQ(세관·출입국·검역) 시스템 등 빈틈없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야 하고, 전북 지역 고유의 문화·자연 자원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후발주자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임항료 감면 등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포트 세일즈와 인센티브 정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 제안했다. /장정철 기자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장수군의의회
JANGSU COUNTY COUNCIL

전북도, 설 앞두고 '원산지 둔갑' 단속...3주 집중점검

내달 13일까지 마트·식육점 점검
외산산채·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사과·배 유명산지 거짓 표기도
표시 위반 징역 7년·과태료 등 처분

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1월 27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 간 도내 마트와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설 수요가 많은 외국산 고사리 등 산채류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소·돼지 등 축산물을 국내산

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사과·배를 유명 생산지로 거짓 표기하는 행위이다. 또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행위를 병행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는 벌칙 대상으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 행위

는 최대 1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소비자 경제에 피해를 주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故이해찬 前 총리 5일간 사회장으로 엄수

7선 국회의원 민주화 거목
민주평통·민주당 공동 주관
빈소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이해찬 前 총리

이 수석부 의장은 전날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했다. 향년 73세.
1952년생인 이 수석부 의장은 1973

년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에 맞선 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민주진영에 몸담고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각각 역임했다.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해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이끌었다.

사회장은 국가 발전에 공헌한 인사가 사망했을 때 관련 단체 및 사회 각계 중심으로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이 수석부 의장은 전날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했다. 향년 73세.

고인의 시신은 오는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된다.

이 수석부 의장은 7선 국회의원을 지낸 거목 정치인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년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에 맞선 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민주진영에 몸담고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각각 역임했다.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해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이끌었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이재명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통한다. 이 대통령은 이 수석부 의장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지식 정무특보를 베트남 현지로 급파했다.

이 수석부 의장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에 맞선 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민주진영에 몸담고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각각 역임했다.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해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이끌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자치도, 축산악취 개선 203억 투입...전 과정 손본다

가축분뇨 발생부터 자원화~원원 전 과정 관리체계 구축 사전 예방 저장조·슬러리피트 집중 개선

이를 위해 ▲축산환경 개선(92억) ▲가축분뇨 적정처리(69억) ▲자원순환 활성화(42억) 등 3개 분야, 16개 세부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축산환경 개선 분야에 92억 원을 투입해 냄새 발생을 사전에 줄이는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축산환경 개선 80개소를 지원하고, 1,566개소에 냄새저감제를 보급한다. 특히 혁신도시 인근 농가에는 별도의 냄새저감제를 지원해 생활권 악취 민원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또 20개소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하고, 53개소에는 분뇨처리 개선과 악취저감 시설을 함께 지원한다.
ICT 기반 악취측정 장비도 도입해 냄새를 체계가 아닌 수치로 관리하는 체

계를 마련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15개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인 환경 개선 참여를 유도한다.
가축분뇨 적정처리 분야에는 69억 원을 투입한다.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저장조와 슬러리피트 관리에 집중해 40개 농가의 액비저장조 고착 슬러리를 제거하고, 106개 농가의 돈사 슬러리피트 관리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9개소에 축분 고숙발효시설을 설치하고, 퇴비 발효촉진제 110톤을 지원해 분뇨가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2만5천 톤 분량도 지원해 농가의 처리 부담을 줄이고, 적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자원순환 활성화 분야에는 42억 원을 편성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4개소를 개보수하고, 3,700ha 규모 농경지에 퇴·액비 살포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가 다시 농업 생산에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농업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가축분뇨를 환경 부담이 아닌 농업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며 "악취의 원인이 되는 저장조, 슬러리, 분뇨처리 구조부터 개선해 지역과 공존하는 상생형 축산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염영선, 윤석열 엄정 심판 촉구 결의안 발의

임시회서 사법부 결단 촉구
"개혁 대상 된 이유 성찰해야"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 강조



염영선 의원의

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일말의 뉘우침과 반성 없이 억지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

고 있다"고 질타하며 "대한민국 헌법 위반, 민주주의 훼손, 국격 실추, 민생을 파탄 낸 윤석열에 대한 심판은 사필귀정이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사법부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 깊이 성찰하고,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오직 법과 원칙,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며 "국민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사법의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사법부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 깊이 성찰하고,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오직 법과 원칙,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1면에서 이어서>

그러면서 "통합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연합이어야 한다"며 "통합 논의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섰을 뿐이며, 결과가 어떠하든 혁신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킬 것"이라며 흡수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서 원내대표는 "혁신당의 정치적 DNA가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될 수 있는 길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라면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합당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협의 과정에서 지분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없다"며 '지분 협상'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 사무총장은 "조국 대표의 '독자적 DNA 고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라

는 큰 생체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70년 역사에는 수많은 정치 세력의 DNA가 다 새겨져 있다. 그게 민주당의 역사"라고 일축했다.

정청래 대표의 통합 추진에 대해서 혁신당이 민주당식 통합에 반발하면서 실제 통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반발했던 이언주 최고위원 등 3명은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에 따라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는 참석했으나, 통합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민주당이 정 대표 개인의 사당이 아니지 않느냐"며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발표를 해버려서 상대방에게 제안까지 했는데 매우 심각한 독단적 결정이고 사실은 이 제안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안호영 "새만금 수상태양광 계통 연결 '속도'...전력 기반 확충"

한전 연결시점 2029년말도 앞당겨
연결거리 13.7km 단축 5천억 절감
데이터센터 재개·반도체 유치기대

통 연결 성과가 단순한 송전선로 구축을 넘어, 좌초 위기에 놓였던 SK 데이터센터 사업 재개는 물론 향후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1.2GW) 사업은 총 3GW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핵심 사업으로, 전력망 연결 문제로 수년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계통 연결 지연으로 SK 데이터센터 등 연계 산업 투자 역시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이번 협의 결과, 한국전력의 계통 연

결 시점을 기존 2031년에서 2029년 말로 2년 앞당겼으며, 기존 내륙 연결 방식(15.4km)을 사업장 인근 연결 방식(1.7km)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연결 거리는 13.7km 단축됐고, 약 5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절감 효과도 함께 확보했다.
특히 '준비된 구간부터 우선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사업인 0.3GW 규모(효성 컨소시엄) 구간을 분리 추진함으로써 2028년 말 조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계획 단계에



안호영 의원은 26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핵심 난제였던 전력망(계통) 연결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머무르지 않고, 실제 발전을 전제로 한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계통 연결 확정과 단계적 조기 접속 결정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정상화는 물론, 전북의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 확보와 향후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는 "그동안 비현실적인 일괄 추진 방식과 계통 병목으로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었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 공급 문제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SK 데이터센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북이 글로벌 기업의 RE100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 상생형 발전 수익 배분 모델인 이른바 '햇빛 연금'의 현실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생점은 이전 여부가 아니라,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산업을 어떻게 분산 배치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부주의의 화재 예방 하자!

화재발생1위 부주의

담배꽂이는 반드시 불이 꺼졌는지 확인!

화기는 항상 꺼졌는지 확인!!

쓰레기 소각 및 논, 밭 태우기 절대 금지!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전원 차단!!

사소한 행동, 습관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천하고 행동하여 화재예방 하세요

“전주시 보훈대상자 명예·예우 높다!”

1월부터 보훈수당 인상 지원

전주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보훈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 시비지급액을 기존 8만 원에서 10만원으로

월 2만 원씩 인상한다. 그러면 참전유공자는 월14만원(도 지원금 4만원 포함)을, 그 외 보훈대상자는 월12만원(도 지원금 2만원 포함)을 받게 된다.

그 외 지원공상군경 및 지원순직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 또한 2만 원 인상된 월 6만 원(도 지원금 2만원 포함)을 수령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주시 보훈

수당 지원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4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보훈대상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조기에 제공하기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인상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번 보훈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

한 조치로 시는 이를 위해 작년보다 14억 원 증액한 총 89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김현욱 복지환경국장은 “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공헌이 오늘의 전주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실질적인 예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수소차 민간구매비용 지원

48억 투입 친환경 교통체계 가속 총 40대 구매비용 지원

전주시가 수소차 민간구매를 지원한다. 시는 총 48억원을 투입해 '2026년 수소차 민간구매 지원사업'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2026년 수소차 민간구매 지원사업'에는 수소승용차 30대(1대당 3450만원), 수소고상버스 10대(1대당 3억8000만원)를 지원 등 총 40대 구매비용이 지원된다.

구매 희망자는 오는 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연속 30일 이



상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전주시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로,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 구매자는 우선 배정 대상으로 선정된다.

신청 방법은 차량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제조·판매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주시 주력산업과 또는 차량 제조·판매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소민 기자



26일 전북대병원 양종철 병원장은 로봇수술400례를 돌파하며 정밀의학 기반 고난도 부인과 수술 분야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산부인과 로봇수술 400례 달성

전국 로봇수술 실적 '최고' 이다.

전북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이 로봇수술을 활용한 첨단장비 수술 난소낭종·자궁근종 고난도 질환 치료 선도하고 있다.

26일 전북대병원 양종철 병원장은 로봇수술400례를 돌파하며 정밀의학 기반 고난도 부인과 수술 분야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2024년 최첨단 로봇수술 장비 '다빈치 Xi(da Vinci Xi)'를 도입해 운영했다.

이어 2025년 2월 '다빈치 SP(da Vinci SP)' 모델이 추가 도입하며 환자 맞춤형 로봇수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난이도 높은 부인과 질환에서 최소 침습 고정밀 수술이 가능해졌다.

전북대병원은 적극적인 장비 투자와 함께 의료진 숙련도 향상을 바탕으로한 도민 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전북대병원 산부인과는 '난소낭종',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등 고난도 부인과 질환 치료에 로봇수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김영태 기자

전안균 초대 송천3동 주민자치위원장 취임

행정과 주민 잇는 가교역할 기대

송천3동에 주민과 행정 가교역할을 담당할 첫 주민자치위원장이 취임했다.

이번기 전주시장은 26일 '송천3동 제1대 주민자치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전안균 초대 주민자치위원장 취임을 함께 했다.

이날 전안균 위원장의 취임식에는 우시장을 비롯해 김관영 도지사,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탁진구정장, 도·시의원, 주민자치위원 및 지역 주민 등 80여명이 취임식장을 빛냈다.

취임식에는 송천3동의 분동 배경 및 위원장의 약력 및 취임 과정을 소개하는 경과보고와 기념촬영, 취임사 및 위원 소개, 축사 등 취임을 축하하는 일련된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도·시의원들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열려 훈훈함을 더했다.

이와 관련, 전 위원장은 호남대·전북대 LINC 교수 역임 후 현재 나라전기관리공사 및 운고울경영기술 총괄대표를 맡은 실무형 경영 전문가다.

특히 에코시티 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소상공인 단체 활동을 통해 현장에

서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만큼,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이자 주민자치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이번 주민자치위원회 출범이 지난해 송천3동 주민센터 개칭으로 행정 체계가 갖춰진 데 이어, 주민참여 중심의 동 운영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또 전 위원장의 취임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소민 기자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 ‘최고 수준’ 특별 주의 당부”

시, 바이러스 전염 매우 강함 영유아 비중 39.6% 예방 '중요'

전주시보건소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증가에 따른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 1주(25년 50주) 190명부터 증가하며 올해 1월 2주(2주) 548명 기준 최고 수준 발생 현황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소량의 바이러스로도 감염하는 전염력이 매우 강한 특징이 있다.

특히 이번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전체 환자 중 0~6세 영유아 비중이 39.6%를 차지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및 관련 시설의 철저한 예방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김영태 기자

“전주 ‘관심·애정’ 빛낼 시민 찾아요!”

2026 전주시 SNS 시민홍보단 오는 2월 9일까지 8명 모집 홍보 콘텐츠 발굴

전주시는 SNS를 통해 홍보·공유할 '2026 전주시 SNS 시민홍보단'을 2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대상자는 전주에 관심과 애정이 많고 시와 시정 홍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전주·완주에 거주하는 시민 8명이다.

시는 SNS 활동 경력자와 콘텐츠 제작 능력이 우수한 지원자를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희망자는 2월 9일까지 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jeonju.go.kr) 또는 블로그(blog.naver.com/jeonju_city)에 게시된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

다. 시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2월 중 선발한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발된 시민홍보단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매월 1건 이상 콘텐츠로 제작하고, 주 1회 이상 시정 소식을 SNS를 통해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콘텐츠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공은 물론 콘텐츠 생산 및 콘텐츠 확산을 위한 원고료를 지급한다.

은수정 시 홍보담당관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지역 곳곳의 다양한 매력을 찾아 알리고자 SNS 시민홍보단을 운영한다”며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누적이용 7천건

의료 접근성 취약 시민 맞춤형 돌봄체계 강화

전주시가 건강 약화 등으로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돕는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를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가 지난해까지 7200건(누적)에 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중요한 돌봄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자의 부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5년 7월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2026.01.01)했다.

서비스는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이 그 대상이며, 병원 이동부터 접수·진료·수납·약국 이용 및 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 희망일 최소 2일 전에는 전담콜(전주지할 1522-4470, 의료사업 221-5454)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또 1일 3시간(주 1회 한도) 이내로 이용 가능하고 비용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는 무료이나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유료(3만원/3시간)로 이용할 수 있다. 교통비는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동행매니저 교통비 포함)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23년 7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4년도 수행기관을 1개소 추가했다. 전주지역자활센터와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업무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난해까지 누적 실적만 7,200건이 넘는 등 지속적으로 희망 수요가 늘고 있다.

/정소민 기자

농식품부-식약처 미국산 신선란 검역·검사 합동 점검

'수입 신선란 검역·식품검사·선별포장' 전 과정 합동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영균)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향후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범 수입된 미국산 신선란의 선별포장시

설과 수입 신선란에 대한 검역·검사 및 계란 세척·선별·포장 등 전 과정을 점검했다.

점검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영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참석해 현재 계란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 시에는 수급상황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계란 수입 전 과정을 세심히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선란 수입 공급망을 점검하고, 향후 계란 수급상황이 악화되어 본격 수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224만개를 수입하기로 했으며, 1월 23일 초도 물량 112만개가 도착하고, 나머지 물량은 1월 말까지 수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입되는 미국산 신선란은 국내 검역과 수입식품검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르면 1월 30일부터 유통업체 및 식자재 업체를 통해 시중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자원순환특화단지 화재안전 협의체 구성

민·관 협력 산업단지 대형화재 선제적 화재안전 관리체계 구축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26일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합동 화재안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공장과 창고가 밀집한 산업단지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와 대규모 재산피해에 따라, 관계기관과 사업장 간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자원순환특화단지는 각종 재활용 시설과 가연성 물질 취급 공정이 혼재돼 있어 화재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빠르고 장시간 진압이 필요한 고위험 지역으로, 체계적인 예방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방용·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 및 굴착행위 시 소방서 사전통보 안내 △화기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 강화 권고 △최근 공장 화재사례 공유 △소방관계 법령 제·개정 주요사항 안내 △민·관 합동 화재예방 캠페인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이번 협의체 운영과 함께, 화재안전 컨설팅 전담반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2월까지 약 1개월간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와 맞춤형 소방안전 교육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최고품질 벼 품종 '수광1' 등재

기존 최고품질 벼 '수광' 장점 유지 밥맛·품질·안정성 인정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5년도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수광1' 품종을 선정했다. '최고품질 벼 품종'은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품종 가운데 밥맛, 외관 품질, 도정 특성, 재배 안정성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하고 있다. 2003년 처음으로 '삼광'을 선정한 이후, 쌀 품질 고급화와 재배 안정성, 수요자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현재는 '수광1'을 포함해 11개 품종이 등재되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현장평가 결과, '수광1'은 지역 주력 품종인

'수광'보다 벼흰잎마름병에 강하고 낙곡 비율이 낮았다. 미국종합처리장(RPC) 도정 평가에서는 백미 완전립 비율 96.3%, 완전미 도정수율 70.6%로 측정돼 '수광' 93.4%, 68.6%보다 높았다. 지난해 11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농업인 120여 명이 참석한 밥맛 품평회에서 '수광1' 선호 비율이 '수광'보다 3배 이상 높아 밥맛이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2027년 농가 보급종으로 '수광1'을 공급하기 위해 국립종자원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품종개발과 정지웅 과장은 "이번 최고품질 벼 품종 선정은 '수광1'의 밥맛과 품질, 재배 안정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다"며 "벼흰잎마름병 상습 발생지와 친환경 재배단지를 중심



농촌진흥청은 2025년도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수광1' 품종을 선정했다.

으로 보급이 확대되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정혜민 기자



전북농협, 명절 대비 농산물 수급상황 점검

물가안정 집중 관리

전북농협은 26일 무주농협 친환경유통센터 현장을 방문해 설 성수기 기간 농산물 원활한 공급안정을 위해 과일 재고현황 및 수급동향을 점검했다.

농협은 농축산물 수요증가 대비한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3주간 설 성수품 10개 품목에 대해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김성훈 본부장은 "다가오는 설에 농업인이 정성껏 생산한 우리 농산

물로 소중한 분들과 감사의 마음을 주고 받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불안 요인을 관리해 국민들에게 든든한 전북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은 "설 명절전까지 식품안전관리 현장점검과 축산물위생검을 병행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농·축산물 판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풍력발전 산업' 간담회 개최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맞춤형 검사제도 공유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26일 풍력발전 산업 관계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풍력발전 보급 가속화 정책에 따른 한국중부발전, 두산에너지빌리티, GS풍력 등 발전사·제조사·시공사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공사는 간담회를 통해 △풍력발전검사팀 운영 체계 △해상·육상풍력 최신 사용검사서 개선 사항 △풍력발전 기초부지 구조물 검사 방법 △드론과 AI 기반 정기검사 적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더불어 검사기법 효율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도 함께 했다.

이날 해상풍력 기상·해상 접근 제약을 고려한 해상풍력 육상 사전검사와 원격검사제어시스템(SCADA) 활용 검사 등 검사 효율화를 위한 개선 성과가

공유되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공사는 올해부터 '풍력발전검사팀'을 신설해 설계부터 준공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친 원스톱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검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뿐 아니라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화영 사장은 "풍력발전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핵심 산업으로, 검사체계

의 혁신 없이는 안정적인 보급 확대가 어렵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검사기법을 통해 풍력발전 산업을 위해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향후에도 풍력발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부의 해상·육상풍력 보급 확대 정책을 기술적으로 지원해 재생에너지 확산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앞선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역 5개 기업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수한 기술력·신뢰성 확보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광수)은 도내 5개사의 제품이 2025년 제4회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새롭게 지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에스엠산업 '보조모터 장착형 수동펌프', ㈜대경산전 '열화감시진단기 가능한 고내구성 태양광 발전장치', 유한회사 태성이앤씨 '변위 대응 구조를 통한 먼진 구조를 갖는 단열 창호', 주식회사 가온우드 '흡습습 흡습용 장식재', 주식회사 디앤에프의 '도브테일 레일이 포함된 무타공 행거 취부용 데크플레이트' 등

이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관로 확대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대표 제도다.

지정기간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김광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기업의 기술력이 공공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이 공공 조달을 발판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인공지능 대전환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AX 실증육성 기반 마련 산업혁신 실행 단계 본격화

전북디지털융합센터(전북테크노파크 부설기관)는 26일 'AX 온라인시스템 구축·운영', 'AX 실증산단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북 산업단지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정부의 인공지능 대전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전북 산업을 대표하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위한 데이터 기반 AX 전략 체계 두 핵심 용역의 추진 방향과 수행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 간 90개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디지털·AI 활용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단 기반이 부족해 국책사업 연계와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실증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단지 AX 전환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업 AX 수준진단, 데이터 기반 지원체계 구축 위해 AX실증산단 전북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25~28)에 세부 사업으로 용역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전북 산업단지 AX 중장기 비전 및 산업군별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전북 산

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AI 활용 수준을 진단하고 정책 연계가 가능한 AX 수준진단 온라인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하고, 수준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AX 기준 데이터맵 도출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며, 조선·조선기자재 산업을 시작으로 기계, 자동차부품, 식품, 에너지 등 산단 내 주요 산업군 특성에 맞는 AX 전환 방향을 단계적으로 설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군산산단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비롯한 도내 일반·농공단지까지 확대 적용 가능한

전북형 AX 전환 모델을 구축할 것이다.

전북테크노파크 최대규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장은 "이번 착수보고회는 전북 산업단지 AX 전환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전략 체계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AX 전환 모델(유즈 케이스)을 마련하고, 기업이 실제로 효용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할 예정이다."

나아가 군산 국가산단을 비롯해 전북 도내 모든 산업단지로 확산시켜 지역 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지난 23일~24일 양일간 JB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박춘원 은행장과 임원 및 영업점장, 본부 부서장 등이 참석해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지난해 경영성과와 리부 및 2026년 경영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직원들과 공유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상반기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전북은행만의 영업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6년 중점 전략과제로는 △자산포트폴리오의 고도화 △리스크 관리의 전략적 혁신 △디지털·인공지능(AI) 경쟁력 혁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맞춤형 채널 및 인력 전략을 통한 경영 효율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조직문화의 근본적 혁신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춘원 은행장은 장기화 되는 지역경기 침체, 금리·환율의 변동성, 정책 규제 변화 등으로 인해 국내·외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기상황이 예상되지만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및 복지 확대와 방향성에 대해 선제적인 건설팀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지역 기반 동반성장 과 전북은행만의 핵심전략 추진을 한층 견고히 할 것"을 독려했다.

이어 그동안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상생경영 실천은 물론,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전북은행만의 가치를 추구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대전환의 원인으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 '신용카드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26일 관내 농축협 카드실무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축협 손익 구조를 개선하고 비이자 수익 핵심인 카드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업적평가 추진 방향 △마케팅 추진 기법 및 사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관리 △농축협 손익구조 이해와 카드사업의 역할 등이다.

교육은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축협 손익 체계 이해와 체계적인 고객 관리 기법을 익히는 등 전문 금융인으로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특히 '농심친심' 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성훈 본부장은 "카드 사업은 농축협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경영 내실을 다지는 중요한 전략 사업"이라며 "이번 교육에서 배운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농심친심(農心天心)의 자세로 고객과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예수병원 김병선 과장, 의선협 신임 회장 취임

전주예수병원 소화기내과 김병선 과장이 (사)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이하 의선협)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회장 김 과장은 제58차 정기총회 자리에서 한국 의료선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신임 김병선 회장은 그동안 의선협 총무이사로서 재임하며 실무를 총괄해온 인물이다.

그는 특히 수년간 한국의료선교대회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의료선교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헌신을 인정받아 왔다.

(사)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이하 의선협) 신임 회장 임기는 2년간이며 김병선 회장과 손발을 맞출 신임 총무 이사로는 천안충무병원 응급의료센터 최일국 교수가 선임됐다.

김병선 회장은 "의선협의 역사를 계승해 다음 세대 열정이 함께하는 단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선협 새로운 구조적 변화와 인적 재정비를 통해 향후 의료선교 50년을 이어갈 기초 토대를 임기 동안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와 함께 진행된 'Medical Mission Summit'에서는 의료선교 현재와 미래



김병선 회장

를 조망하는 다채로운 순서가 이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교대회 이후의 삶(이호준/임한나) △낙도봉사 10년의 평가와 제

인(박정옥) 등 특강 △ICMDA 진행보고 △연세의료원 및 삼일교회 사역 나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행사를 통해 최영환 이사의 라오스(KOICA) 파송식이 거행됐다.

1968년 창립된 의선협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을 바탕으로 의료를 통한 복음 전파에 힘써왔다.

국내외 소외된 이웃과 재난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의료선교 연합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예수병원은 이번 김병선 과장의 회장 취임을 통해 국내외 의료선교 사역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으며, 선교 거점 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중기청 '26년 틱스 지원계획 공고

ESG 기업 10% 우선할당

중기부는 2026년 틱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를 1월 26일 실시한다.

틱스는 민간의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해 투자·보육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체계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100개사 늘어난 800개사를 선정해 R&D 자금을 지원하며 비R&D(사업화) 자금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65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틱스 지원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R&D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틱스 도입 이후 13년 만에 최초로 R&D 일반트랙 지원단가를 2년 5억원에서 2년 8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맞춰 틱스 운영사의 투자 요건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유망기업 선별기능도 강화한다.

R&D 다편트랙 지원대상을 개편해 일반트랙을 졸업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 15억원 규모의 후속 연구개발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 틱스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물량의 50%를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할당하고, 투자요건도 수도권 기업 대비 50% 완화(수도권 2억원, 비수도권 1억원)한다.

선정평가 과정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요소를 반영한다. 기후테크·소셜벤처 등 ESG 기업에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 물량의 10%를 우선할당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를 평가에 반영한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R&D 다편트랙은 기존 2회 대면평가를 1회로 통합하고, 비 R&D는 대면평가에서 서류평가로 전환한다.

조정원 창업정책관은 "AI·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 창업기업의 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계획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의 2026년 틱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관계회복 숙려제’ 성공적 현장 안착 돕는다”

전북교육청, 3월 초등 전학년 확대 교원 관계조정 역량 강화총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관계회복 숙려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과 관계중심 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관계회복 숙려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처벌보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전북교육청은 지난

해 9월부터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는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되면서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의 관계조정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2월까지 교사 300여 명, 교장·교감 400여 명, 도교육청 관계조정지원단 100명이 참여하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및 관계조정 전문가 양성 연수’가 운영된다.

교사 연수는 △학기초 관계형성 프

그램 △비폭력 대화법 △갈등 분석 기법 △일상적 갈등 조정 방법 등 학급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장·교감 및 교감자역연수 이수자 등 관리자 대상 ‘관계조정 전문가 양성 연수’도 운영한다.

학교 관리자들의 관계조정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 연수는 경미한 학교 폭력에 대한 전문적 조정 방법을 중점으로 교육하며 회복적 정의의 이해부터 학교 갈등 상황에서의 관리자의 역할, 조정의 이해와 절차 배우기, 조정 실

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연수를 이수한 교원의 실천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관계중심 생활교육(관계조정) 교원 연구회 45개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연수에 참여한 이선순 군산흥남초 교장은 “연수를 통해 습득한 관계조정 능력을 활용해 학교 현장 갈등 상황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원의 관계회복 조정 능력 키워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군산대 ‘학생중심 교육환경’ 학생 선택 “상위”

최고 취업률 이어져

국립군산대학교가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 경쟁률 5.53대 1을 기록했다.

국립군산대학교 경쟁률 5.53대 1 기록은 지난해보다 높은 상승세다.

경쟁률 5.53대 1 기록 상승 요인으로 국립군산대학교는 △진로·취업 지원 확대 △학사제도 혁신과 학생 복지 강화 결과로 분석했다.

국립군산대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는 ▷수능 위주 전형 7.33대 1 ▷다군 일반전형 5.62대 1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중어중문학과 14.60대 1 ▷일어일문학과 13.00대 1 ▷철학과 12.00대 1 ▷간호학부 11.25대 1 등에서 강세였다.

먼저 △국립군산대는 전국 최초로 ‘B·E·S·T 학사 체계(3무(無) 전과제)’를 도입하며 학생 중심 교육환경을 구축했다.

‘학년·학과·횃수 무제한’ 3무(無) 전과제도는 평균 학업 성적 상승(백분위 3.7점)과 96% 만족도를 기록했다. 또

지난 2024학년도부터 운영 중인 모듈형 커리큘럼 학위과정(MCD)도 경쟁률 상승 주요 배경으로 평가됐다.

이러 △교육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학생 복지 역시 경쟁률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립군산대는 2025학년도 연간 평균 등록금은 약 390만원으로 전국 4년제 대학 중 최저 수준이다. 더불어 ‘KSNU 지역인재 장학금’, ‘마일리지 장학금’, ‘안심생활지원 장학금’ 등 성적·소득·맞춤형 학비 감면의 장학금은 확대되고 있다.

효과 △2024년 취업률 60.2% 대기업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한국전력기술’과 주요 연구기관(ETRI·KISTI·GIST) 진출도 확대되며 국가중심 국립대 중 3위를 기록했다. ‘B·E·S·T 학사 체계’ 연계한 진로·취업 역량 확대 및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학생들 진로 선택과 취업 체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B·E·S·T란 독창적인 학사 운영 체계로서 △B는 Boundless 소속 없는 교육 △E는 Extendable 졸업 시기 유연한 선택 △S는 Shiftable 전과 자유화 △T는 Thresholdless 학과 전공선택 시 정원에 제한이 없는 학사 제도다.

국립군산대 임기욱 총장 직무대리는 “지역과 산업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형 대학으로 지속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학교 “피지컬 AI 기반 AX 산업” 생태계 조성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전북대 실증랩 방문

전북대학교 피지컬 AI융합기술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피지컬 AI 중심으로 AX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실행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26일 배경훈 겸 과기부 장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 AX 사업 사전검증 사업 성과 현장점검’을 전북대학교 제조기술 실증랩(창조2관)에서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2026년부터 추진될 ‘전북 AX 사업’에 앞서 2025년 사전검증(PoC)을 통해 구축한 기반과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경훈 겸 과기부 장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전북대학교 총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성균관대학교, 현대자동차, 전북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 실증 참여기업 등 산·학·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북 AX 사업의 첫 단계인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PoC)’은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국비 219억원을 투입해 추진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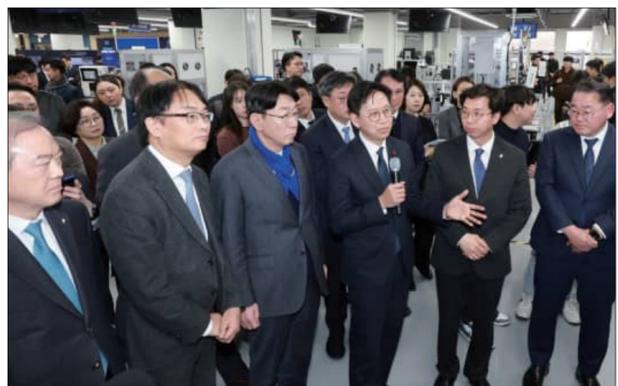
전북대학교가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성균관대학교’, ‘현대자동차’, ‘전북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과 함께 디에이치오토리드·동해금속·대승정밀 등 지역 제조기업이 참여했다.

사전검증 사업의 핵심은 제조 현장에 실제 적용 가능한 피지컬 AI 기술을 사전에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북대학교에는 제조 공정을 실험 그대로 구현한 ‘제조기술 실증랩’이 구축됐다.

해당 공간은 단순 연구시설을 넘어 실제 공정과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와 생산 시나리오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P-Zone과 I-Zone) 기반을 확보했다.

P-Zone은 AMR, 산업용 로봇, 협동로봇, 비전 시스템을 연계해 소재 공급부터 가공·조립·검사·배출까지 전 공정을 통합 구현하는 유연 생산 공간이다. 사람·로봇·



설비 간 협업능력과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 MES 연동을 통해 공정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다품종·소량생산 시나리오를 검증하도록 구축됐다.

I-Zone은 휴머노이드, 이동형 양팔로봇, 사족보행로봇, 매니퓰레이터, 모션캡처 장비 등을 활용해 학습 데이터 수집과 Sim-to-Real 검증이 이뤄지며, 멀티모달·LLM 기반 조작, 다중 로봇 협업, 텔레오퍼레이션 기반 데이터 수집 등 차세대

피지컬 AI 핵심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실험·검증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은 “사전검증(PoC)은 피지컬 AI가 연구 단계를 넘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한 성과”라 강조하며 “전북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대한민국 제조 AX 핵심 거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신규 감사담당공무원 청렴 감사행정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정서적 고충 해소와 건강한 직장생활 지원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심리상담·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에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해마다 참여 인원이 증가하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43개 상담기관과 23개 치료기관 등 총 66개 기관과 함께 교육공무직원의 심리상담·치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으로 운영되며,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

장된다. 개인상담은 희망자가 직접 상담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 시간에 기관을 방문해 상담·치료를 진행한다.

집단상담은 구성원 간 갈등 해소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에 신청하면 업무 담당자가 직접 상담기관을 연계해 준다.

노경숙 노사협력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직장생활 만족도 제고와 교육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본인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 출신 조완희·최두진,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

스노보드바이애슬론 출전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대회에 전북에서는 2명의 선수가 출전, 메달 획득에 나선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다음달 6일 개막하는 동계올림픽대회에 전북 출신 또는 도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2명의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설원을 누빈다.



조완희

최두진

전북스키·스노보드협회 소속인 조완희(스노보드)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

까지 국가대표이며 제105회 전국동계체전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올림픽에서 스피드를 겨루는 알파인 평행대회전에 출전한다.

무주 출신인 최두진(포천시정)은 바이애슬론 종목에 출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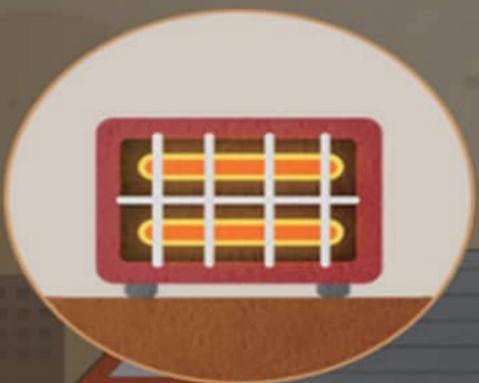
최두진은 하얼빈 아시안게임 남자 계주 경기에 출전 4위를 기록,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전북스키·스노보드협회 문대중 회장은

“최고의 컨디션으로 후회없는 경기를 펼치고 왔으면 좋겠다”며 “조완희 선수를 비롯한 우리 선수단이 선전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대회는 2월 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 간 열리며 대한민국 선수단은 빙상과 스키, 바이애슬론 등 6개 종목에 약 130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한다. /양정철 기자

겨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이유



난방으로 인한 연료 사용량 증가로
오염물질배출량 증가



대기순환이 불안정 하고
강수량이 낮아 미세먼지 제거 어려움



추운 날씨로 자동차 등의
배기가스가 잘 휘발되지않음

정읍시,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1년 더 연장

정읍시는 당초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지역 민생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내수 부진과 금리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읍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증명 서류를 갖춰 해당 공유재산의 대부 계약 및 사용 허가 부서에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도로·공원·하천 사용료를 내는 경우나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 최저 요율(1%) 적용 대상, 무단 점유자는 이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이 힘겨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체들에 작게나마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정읍시, 답례품 구성 '풍성'

정읍시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정읍에 기부하는 기부자들 또한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고 26일 전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상당 조정된 것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올해부터 지자체에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돌려받는 세금은 기존 약 11만 6500원에서 약 14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기부금의 30%인 6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게 되면 총 20만 4000원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시는 이러한 혜택 확대가 기부 유인의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매력적인 답례품 구성에 공을 들였다. 기존의 한우, 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인기 품목은 유지하되, 올해부터는 정읍 특산물이인 쌍화차를 활용한 초콜릿, 블루베리 잼, 짜 먹는 블루베리 등 신규 품목을 추가했다.

제도 변화로 관심이 높아진 잠재 기부자들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기부자의 부담은 줄고 혜택은 커진 만큼 고향사랑 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2026년 읍면동 신년대화 성료·시민체감행정 구현

군산시가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총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했던 '2026년 병오년(丙午年) 읍면동 신년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년대화는 감임준 군산시장과 간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시민과 한 자리에 모여 새해 시정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장으로 '시민 중심의 체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읍면동 신년대화 행사장에서는 각 읍면동의 주요 현안과 일상 속 불편 사항, 그리고 시정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특히 작년 신년대화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 처리결과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해 행정의 신뢰를 높였으며, 실제 개선된 사례를 공유해 시민들의 만족도도 끌어올렸다.

행사방식 '격식을 줄이고 편안한 분위기', '상황에 맞는 유연한 행사 진행순서 조정' 등의 피드백을 반영해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분위기로 개선됐다.

감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의 발전은 오롯이 시민의 참여와 협력 위에서 가능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2월 한달간 1백만원 ↑ 지역소비 진작설 명절 기간 사용자 편의 제고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군산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전격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설 명절 소비 집중 시기에 맞춰 △가계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건인 △민생 안정 제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지류 상품권(10만 원→30만 원)과 카드·모바일 상품권(70만 원→100만 원)을 합산, 한 달 동안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상품권 구입이

가능하다.

단, 지류 상품권은 65세 이상(1961년 생까지)만 구매할 수 있고, 보유 한도도 종전과 같이 150만 원이다.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100만 원을 충전하면 10% 선할인 적용을 받아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70만 원 충전·7만 원 혜택)과 비교하면 3만 원의 혜택이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지류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3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해 지류를 선호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이현헌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가 돼 지역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사랑상품권은 2026년 누적 발행액 3조 2,900억 원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빈틈없는 대응으로 시민 안전 지킨다"

정현율 시장 간부회의서 한파 취약계층 보호 등 지시

정현율 익산시장의 지속되는 한파와 건조한 날씨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 현안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주문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26일 간부회의에서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산불 예방 체계 강화, 제275회 시의회 임시회 대응 등 시급한 현안들을 직접 챙기며 고강도 대응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강력한 한파와 관련해 '취약계층 보호를 최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기온 하강에 따른 시민 고충이 큰 만큼, 취약한 현장을 직접 찾아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지정된 한파 쉼터 운영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홀로 사는 시민 등 한파 취약계층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보일러 점검과 난방비 지원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정 운영의 동력 확보를 위한 의회와의 소통도 강조했다. 정 시장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해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돼야 한다"며 "조례안과 동의안 등 상정된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

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시의회와 소통해달라"고 전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산불 사고와 관련해 예방 활동에도 고삐를 죄었다. 정 시장은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산불 감시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관 부서 간 비상 연락 및 협업 체계를 즉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현율 시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시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교통사고 위험 도로 개선 추진

당현마을 교차로 등 4개소 안전한 환경 조성

정읍시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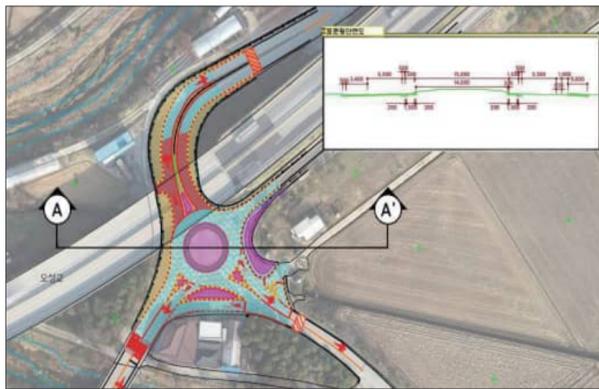
시는 올해 총사업비 16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도로 4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정부의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도로교통공단, 정읍경찰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지점에 대해 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개선 대책을 수립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정비될 주요 사업 대상지는 당현마을 교차로 개선 △군도 20호선 도로 선형 개량 △시가지동 초산교 사거리 개선 등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고를 유발할



정읍시는 올해 총사업비 16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도로 4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수 있는 불합리한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필요한 안전 시설물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그동안 도로 구조 문제로 겪었던 시민들의 통행 불편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도시가스 지원 확대

공급관 설치비용의 80% 최대 7백만 원 지원

익산시가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 복지 확대에 나선다.

익산시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독·다세대·연립 주택 등 약 40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공급관 설치비용의 80% 한도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 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 회사인 전북에너지서비스㈜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6월 중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

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은 87.1%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스는 연료비 절감 효과는 물론 안전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필수 에너지"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 복지 격차를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보급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전면 시행

이용 편의성 향상 기대

군산시가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함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전면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사용하는 전자증명서로, 기존 실물 카드와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특히 휴대가 간편하고 분실 위험이 적어, 각종 복지 서비스 이용 시 실물 카드 없이도 신분 및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장애인등록증 종류

에 따라 달라진다.

IC칩이 탑재된 신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 태깅 방식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나,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정보인식부호(QR코드) 인증 절차를 거쳐야 발급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은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의회, 업무계획 보고 청취·조례안 등 심사

제275회 임시회 개최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26일 2026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하고 다 음달 6일까지 12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조례안 12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7건으로,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철원 의원)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소길영 의원)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우 의원) 등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강경숙 의원이 대학로 부활, 논의의 시간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 △강경호 의원 - 선심성·일회성 예산에 밀린 생활 SOC의 현실 △김미선 의원 -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인력 수급 구조 개선의 필요성 △손진영 의원 - 이동노동자쉼터 보충금 손실과 기간제근로자 1년 미만 고용 관행에 대해 발언했다.

김경진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면서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약취 저감에 4억 3천만 원 투입

정읍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4억 3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감시망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시설 개선 지원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먼저 △탈취탑 설치 △악취 저감 미생물제 지원 △음식점 미세먼지 차단 강력화 등 총 9개 분야의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 및 접수는 오는 3월 중 공고를 통해 진행된다.

이러한 지원책과 더불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도 병행한다. 시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

과한 사업장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 처분까지 진행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무인악취포집기 5대를 주요 악취 발생 우려 지역에 추가로 설치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과 상습 위반 시설에 대한 강력한 단속, 현장 중심의 24시간 대응이라는 일체적인 전략을 통해 악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머무는 도시'로 인구정책 방향 전환

익산시가 도시의 매력도를 높여 사람이 정착하고 머무는 도시로의 전환에 나선다.

익산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를 열고, 2026년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인구정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익산시 인구 현황과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말 기준 익산시 인구는 26만 7,000여 명으로, 인구 감소폭이 2024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30대 인구가 767명 증가하며,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목표로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유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존의 인구 유지 중심에서 사람이 머물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정착 여건을 강화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

응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익산시 인구정책은 청년 정착 기반 강화와 주거·일자리를 연계한 정주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와 외국인·귀농귀촌·체류형 관광을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고품질 대안과 삶의 질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이 핵심 축으로 설정됐다.

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7대 분야 16개 중점과제, 43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과 주택, 일자리, 생애주기, 신촌, 인구구조 대응, 정주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형 인구정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도시의 구조와 삶의 환경을 함께 바꿔야 하는 과제"라며 "청년과 가족, 외국인, 신촌 등 모든 세대가 익산에 머물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시, 삼천리길 설계 본격화

22억 4700만원 투입 2027년까지 4개 노선 정비·거점마을 조성

김제시는 26일 이현서 부시장을 주재로 시의원과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삼천리길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착수보고 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 따라 김제를 잇는 노선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 방향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제 노선마다 각각 특색있는 테마를 정하고 거점마을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수 있도록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서 부시장은 "시민과 탐방객 모두가 삼천리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김제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30일까지 신청·33명 모집

김제시는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3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과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주수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된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부안 변산면 죽막마을 정상열 이장 이웃돕기성금 1백만원 기탁

부안군 변산면은 죽막마을 정상열 이장이 최근 변산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9년부터 이웃 사랑 나눔을 시작해 올해로 여섯 번째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정상열 이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추운 날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장회의 수당을 모아 기부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계속 나눔에 더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전북도 주관 공모 선정 도비 1억4천만 원 확보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에 선정돼 도비 1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기업지원에 위한 '고창군 재도약 기업(UP) 지원사업Ⅲ'으로 공모해 선정됐다.



특히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 양성 및 근로환경 개선, 고용 안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이 운영되면서, 관내 인력난 해소와 지역 인재의 안정적 정착 등이 이뤄질 예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부안읍, 2026년 군민 희망소통대화 성향

3대 추진전략 등 제시

부안군 부안읍(읍장 김병태)은 26일 부안읍소통관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읍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실창래(結實蒼來) 2026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군정 주요 성과로 부안읍 침수 예방 등 숙원사업 해결, 농업재해보험 자부담 전액 지원 등 민생정책, 역대 최고 국가예산 6000억원 시대 개막을 포함한 부안정책 토크를 발표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도약을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부안형 비빔밥, RCI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안철도시대 구축을 제시하며 군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확대 협약

체류 관리 이행 협조 등 안디잔주와 MOU 체결

부안군은 지난 23일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베트남과 라오스 등 2개국과 협약을 통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번 우즈베키스탄과의 추가 협약을 통해 영세농가에게 더욱 힘이 될 수 있도록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절근로자 송출 및 관리 협력, 불법체류 방지, 근로조건 및 체류 관리 이행 협조 등으로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농번기 인력

/부안=신상수 기자



이현서 김제 부시장, 현장행정 집중 추진

이현서 부시장이 지역 주요사업장을 직접 돌며 현안 파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22일, 23일 3일간 관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특히, 둘째 날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현장 전부를 점검하며, 새만금 개발이 지역 균형발전과 전북 미래 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23일 마지막 날에는 △도시재생사업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을 찾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사항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업일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2만원 인상 지원

보훈 예우 강화 군비 부담 확대 추진

고창군이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호국보훈수당을 2만원 인상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6.25참전·월남참전) 본인에게는 월 15만 원, 그 외는 월 13만 원의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한다.



인상 지급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은 호국보훈수당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환경시설단지 방문·운영 현황 점검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가 지난 23일 환경시설단지를 방문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주요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영식 부군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비롯해 폐기물 매립장, 재활용 집하장, 음식물유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소각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 운영 체계, 안전관리 상황 등을 확인했다.

리 공평 등을 살폈다. 부군수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현장 근무를 이어가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근무여건, 장비 유지관리, 시설 개선 관련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영식 부군수는 "군민의 생활환경과 위생은 현장에서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여러분들의 손끝에서 지켜지고 있다"며 "한파 속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다해주시는 근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읍·면 순회맞춤형복지팀 방문교육...서비스 강화 도모

고창군이 현장중심의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읍면 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과 기초생활보장팀이 지난 13일부터 2주간 14개 읍·면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진행됐다. 복지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무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고창=백종규 기자

순창군, 자연재해 안전도 'A' 재난대응 인정

행안부 진단 'A등급' 전국 상위 15% 집중호우 당시 인명피해 0건 성과 특별재난지역 시 국고 2% 가산

순창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재난 대응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진단 결과는 지역의 안전 관리 체계가 얼마나 탄탄하게 구축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순창군의 행정 역량이 전국 상위권을 입증했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매년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위험 요인, 재난관리, 시설관리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산정하는 제도다. 이 중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전체의 15% 미만으로, 순창군의 성과는 의미가 크다.

이번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올해 순창군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고 추가 지원 2% 가산 혜택이 주어진다.



순창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전국적으로 재난 대응 능력을 공식 인정받았다. <사진=순창군>

군은 평소 재난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함께 선제적인 시설물 관리를 실시해 왔다.

실제로 지난여름,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안긴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당시, 순창군에서는 단 한 건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군은 기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난 발생 이전부터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췄다.

당시 군은 기상특보 발효 직후부터 상황실을 즉각 가동해 조동 대응에 나서며, 위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대피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복구 단계에서도 피해 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복구 활동을 추진하며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일상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분히 대응해 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A등급 획득은 실제 재난 발생 시 군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기업의 성장하고, 그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혼불문학관, 최명희 작가 육필편지 서울 전시 지원

남원 배경 '혼불' 30주년 기념 남산도서관 문학실에 제공

혼불문학관이 최명희 작가의 대하소설 '혼불' 완간 30주년을 기념, 작가의 육필 편지와 사진 등 소 개에서도 피해 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복구 활동을 추진하며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일상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분히 대응해 왔다.

덕분에 전시를 더욱 풍성하게 구성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최명희 작가의 대하소설 '혼불'은 1981년 동아일보 장간 60주년 기념 2천만 원 고료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돼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월간 신동아에 연재된 작품이다. 남원시 사매면 노봉마을을 주 배경으로 1940년대 모습을 담고 있으며, 관혼상제 및 음식 등을 통해 남원 사람들의 삶을 생생히 재현해 소설 이상의 가치를 지닌 깊이 있는 문학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산도서관 문학실 관계자는 "혼불문학관에서 제공해 준 자료

남원시, 道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 선정...2억 확보

소기업 40곳 지원 취업 연계 강화 시제품·판로·컨설팅 등 밀착 지원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 2억 1천 4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남원시는 관내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기업 지원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 약 40개사를 지원하고, 15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해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매출 증대에 초점을 두고 ▲시제품 제작 및 상품 고도화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지원 ▲경영·기술·마케팅

컨설팅 ▲MD 상담 및 유통 채널 연계 ▲기업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운영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단발성 지원을 넘어, 기업의 성장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기업의 성장하고, 그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이종훈 완주군 부군수 상생·현안사업 현장 점검

상관저수지 돌레길 등 4개 상생 화산면 센터 건립 등 18개 사업

완주군이 주요 상생·생점·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종훈 부군수 주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되며,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및 군정 전반의 핵심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상관저수지 돌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 등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4개 사업과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등 생점·현안사업 18개 사업으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장점검에는 부군수와 소관 실·

과·소장, 담당팀장, 해당 읍·면장이 함께 참석해 사업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적 관리가 시급한 사업이나 주민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 지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종훈 부군수는 "주요 현안사업은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서류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각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설맛이 완주물 할인·직거래장터 연다

온라인 2월 26일까지 최대 31% ↓ 28~29일 군청서 직거래장터 운영

완주군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과 농가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군민에게 합리적인 명절 소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완주물 설 명절 온라인 할인 행사'와 '설 명절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완주물 할인 행사는 오는 2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관내 24개 업체가 참여해 100여 종의 명절 선물용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참여 상품은 붕동 생강을 활용한 편강·생강청·생강과즙 등 지역 특산 가공식품을 비롯해 한우·한돈 선물세트, 곱감·파프리카·표고버섯 등 신선 농축산물, 참기름·들기름·도라지청·흑귀간·전통차 등 설 명절 선물 수요가 높은 상품들로 폭넓게 구성됐다. 해당 상품은 최대 10~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과일구러미 상품은 '완주물×엘



완주군은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완주물 설 명절 온라인 할인 행사'와 '설 명절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사진=완주군>

로우팜' 협업 기획 상품으로, 레드향·사과·배·한라봉·레몬·곶감 등 명절 선물 수요가 높은 과일을 중심으로 실속형(소형) 7종, 프리미엄(중형) 8종, 단품 세트 6종으로 구성됐다.

해당 상품은 고급 보자기 포장 패키지로 선물 활용도를 높였으며, 사전에 약 기간인 2월 1일까지는 최대 31%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2월 2일부터는 정상 할인 가격으로 판매

가 이어진다. 설 명절 직거래장터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완주군청에서 개최되며 관내 농가와 소상공인 등 2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또한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 10만 원 이상 시 두바이 폰드 쿠키 등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함께 운영해 직거래장터 방문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농기계 폐오일 수거·처리 지원사업 추진

임대사업소 방문 현장 교환 가능 폐오일 10리터당 디젤오일 1통 교환

순창군은 농기계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오일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해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폐오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중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농기계 정비 후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어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무단 투기·소각되는 폐오일을 안전하게 수거함으로써,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폐오일 교환을 원하는 농업인은 각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교환할 수 있으며, 교환 비율은 폐오일 10리터당 디젤오일 1통이다. 개인별 최대 2통까지 교환 가능하다. 수거된 폐오일은 임대사업소에서 일괄 수거한 뒤, 지정 폐기물 처리 허가업체에 이관해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방치된 폐오일은 농촌 환경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폐오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성과' 올해 33% 증액

내달 추가 수요조사·신청 접수 고령·여성농·산림 인접지 중점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지난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산불 발생이 30% 이상 감소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두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사업면적 116ha, 37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했으며, 올해는 총사업비 1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액했다. 이에 따라 계획 면적은 130ha, 지원 인원은 500명으로 확대돼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19일부터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1인당 1일 1ha 이내로 제한되며, 65세 이상 고령농, 장애인(거동 불편자 포함),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지 100m 내외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고령 농업인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사업 수행 기간은 1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상반기에는 과수(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하반기에는 밭작물(고추, 참깨, 들깨)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농업기술센터,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접수

화상병·돌발해충·뿔나방 확산 차단 작년 820ha·989농가에 약제 공급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충과 외래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에 나선다.

현장지원과에서는 과수(사과, 배, 복숭아, 오미자, 감, 자두)와 토마토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돌발병해충(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 토마토뿔나방 적용 약제를 지원

할 계획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발생 시 과원 폐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정 전염병이다. 돌발병해충은 과수의 잎과 줄기를 흡즙해 생육을 저해하고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토마토뿔나방은 최근 발생이 늘고 있는 검역 병해충으로 식물체 조직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내부 조직을 넓게 갉아 먹는다. 상시 예찰을 통해 발견 즉시 방제가 필요하다.

센터 관계자는 "꾸준한 예찰과 방제 지도로 병해충의 개체수를 감소시켜 과수, 토마토 재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방제약제는 등록된 적용약제를 사용해야 하며, 주변 산간부에서도 발생하므로 동시 방제가 효과가 높다. 수확기 과원의 경우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사용기간 등을 준수해야 한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5년도에 방제약제를 820ha, 2억 8백만원, 989 농가에 공급했다.

센터 관계자는 "꾸준한 예찰과 방제 지도로 병해충의 개체수를 감소시켜 과수, 토마토 재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29일 군청서 올해 첫 단체 헌혈 캠페인 진행

완주군이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2026년 첫 단체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

군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과 공동으로 완주군청사 앞 민원인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헌혈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혈 참여자는 혈액형, 간염, 간기능검사 등 혈액검사로 개인건강을 체크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 4시간 인정, 헌혈증서 및 기념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미숙 보건소장은 "군민의 적극적인 헌혈캠페인 참여로 헌혈 기부문화 조성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참여를 독려해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서남용 완주군수 출마예정자 '민원이력제' 등 생활 공약 발표

서남용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약 중에서도 시급한 것이 "군민의 일상을 바꾸는 정책부터 실행하는 것이다"며, 생활 밀착형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서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는 "통학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완주군 "학생 무상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학부모 교통비 부담 완화와 농촌·읍면 간 교육 격차 해소,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향우 군민과 완주를 방문하는 방문객에도 점차 적용해 활성화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의 반복·지연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민 민원이력제 도입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원이력제는 민원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여 담당자 변경 시에도 연속 관리 동일·유사 민원에 대한 책임지는 행정 시스템이다.

또한 서 출마 예정자는 "아이 아픈 밤, 부모가 가장 두려운 시간"이라며 "24시간 소아과 병원 유지"를 핵심 의료 공약으로 밝혔다. 이는 야간·주말 소아 응급 공백 해소, 젊은 세대 정주 여건 개선,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오는 31일 의원사무실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 서 출마예정자는 "화려함보다 진정성·접근성·정치적 메시지가 살아나는 출판기념회로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장소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 주의 집중 홍보 나서

순창군은 겨울철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 당부하는 집중 홍보에 나섰다.

군은 이장 회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전단지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 내 전국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최대 수준('26년 2주, 548명)을 기록한 가운데,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쉽게 감염될 수 있어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및 음식점 등 철저한 예방 관리가 요구된다.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생굴 등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음식의 섭취했을 때 감염되며,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사람간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환자 발생 시에는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등원, 등교 및 출근 제한하기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하기 ▲배변 후 변기뚜껑 닫고 물 내리기 ▲구토물,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해 소독하기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임실군의회, 주민참여형 태양광시설 선진지견학 실시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 23일 임실을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태양광 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사업의 모범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으로 선진지견학을 다녀왔다.

이날 견학에는 임실군의회 양주영 부의장,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과 임실을 이장협의회 강삼원 회장 등 지역 주민 12명이 참여했다.

우수 사례로 평가받는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전주시민이 출자한 협동조합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8개 발전소(875kW)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전주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 유휴부지와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활용해 발전소를 조성했으며, 조합원 출자금으로 건립비를 충당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조합원과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협동조합 박은재 사무국장은 협동조합 설립 과정, 행정 협의의 실제 어려움과 해결 방식, 공공부지 태양광의 안전성 확보 절차, REC 가중치를 활용한 수익 구조, 그리고 배당과 지역사회 환원 사업 등 협동조합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고, 태양광 발전소가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주민 수익과 에너지 자립도를 함께 높이는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선착순 모집

진안군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인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스마트폰 앱(APP)과 스마트 밴드(활동량계)를 활용한 24주 과정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로 간호사, 코디네이터, 영양사, 운동처방사로 구성된 4명의 전문 인력의 상시 모니터링과 상담 및 검진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지역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대상자는 20대~50대인 진안군민 또는 진안군 관내 회사의 직장인이다.

3월 27일까지 총 50명을 모집하며 모집 인원 초과 시에는 4월 중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중 건강 위험 요인 1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우선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단, 유질환자나 약물 복용자, 전년도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진안군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팀으로 전화 또는 보건소 1층 모바일 헬스케어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산불대책본부 가동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임실군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지난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산불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상황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한 대비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산불대책본부는 군청을 중심으로 읍·면 산불대책본부를 함께 운영하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현장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또한 산림 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을 활용해 취약 지역 순찰과 입산자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산불 발견 즉시 신고(임실군 산림녹지과 063-640-4232/임실군 소방서 119)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원스톱 홍보싱크탱크 맹활약

홍보담당관 신설 효과에 홍보마케팅팀 추가

임실군이 지난 해 홍보담당관 신설 효과에 힘입어 올해에는 부서내 홍보마케팅팀까지 조직해 천만관광 시대 달성을 위한 집약적이고, 전문적인 원스톱 홍보싱크탱크를 본격, 가동하며 맹활약하고 있다.

군은 지난 해 도내 군 단위로는 처음으로 홍보담당관을 신설했다. 홍보담당관은 언론을 아우르는 홍보팀과 임실군정 공식SNS를 전담하는 뉴미디어팀, 홍보가 주요한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는 고향사랑팀과 2025임실방문의해팀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군은 지난 해 임실방문의 해를 강조하는 현장 중심 홍보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미디어·SNS 홍보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홍보 홍보 전략을 본격 추진하며, 지난 해 역대 최대인 918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들 팀들의 유기적인 연계시너지는 봄에는 벚꽃축제와 임실N팻스타, 여름 아쿠아페스티벌, 가을 임실N치즈축제, 겨울 산타축제 등의 사계절 축제와 연중 찾아가는 홍보부스 운영, SNS 집중 홍보, 유관기관 및 단체 초청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같은 기세에 힘입어 군은 올해 1월 기준 2025임실방문의해팀을 해체하는



대신 홍보마케팅팀을 신설해 관광객 유치와 주요 군정 정책 홍보를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했다.

신설된 홍보마케팅팀은 △축제 및 타 지자체 현장 홍보부스 운영, △방송·유관기관 연계 홍보 △인플루언서 캠페인 △모바일 스탬프 투어 △기관·단체 방문 유치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하며 관광홍보 접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군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기억하는 체험형·참여형 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SNS 홍보 경쟁력도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 숏폼 중심 콘텐츠 확대와 플랫폼 맞춤형 운영 전략을 추진한 결과, 공식 SNS 4개 채널(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의 총 구독자 수는 2026년 1월 기준 5만 2,400여 명

으로, 2024년 대비 37.5%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식 유튜브 채널 '임실엔TV'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전면 개편해, 스토리와 체험을 결합한 기획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임실의 일상·관광·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는 한편, 주요 군정 정책에 대한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보와 연계된 고향사랑기부 역시 지난 3년내 가장 많은 모금액을 달성했다. 지난 해 임실군의 고향사랑모금액은 총 13억6800만원이고,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이후 누적액은 31억원으로 도내 1위를 기록했다.

군은 올해도 홍보전략과 연계해 2026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부사업 확대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돌봄통합지원협의체 출범

'돌봄 공백 없는 무주' 만든다!

무주군이 "무주형 돌봄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제1기 무주군 돌봄통합지원협의체가 출범했으며, 무주군은 이를 기반으로 돌봄 공백 없는 무주를 만드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기 무주군 돌봄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지역 내 보건·복지·의료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중심, △삼거리에서의 돌봄,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 2026년도 통합돌봄 시행에 대비한 세부 실행계획을 심의·자문하며, 서로의 책임과 역할을 확인했다.

△방문 의료 사업,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지원, △병원 동행 지원 등 의료에서부터 보건·주거·일상생활 돌봄에 이르는 전 영역에 걸친 주요 사업들도 논의됐다.

/무주=최희호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형 통합돌봄은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꼭 필요한 분들이 돌봄 공백을 겪지 않도록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각 영역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제공·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군,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일자리공공근로 등 총 39명 선발

장수군은 다음달 6일까지 근로 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공공근로 등으로 나뉘고 총 3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8명, 공공근로 31명이다.

접수는 26일부터 시작되고 참여를 희

망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산업팀 또는 장수군 농업정책과 일자리창출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 결과는 다음달 말까지 개별 통보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상반기의 경우 3~6월, 하반기의 경우 7~10월 총8개월 동안 근무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아이돌봄 보조, 청소 및 환경정비 등의 분야에 투입된다.

참여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

인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군민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다.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동일 기간 내 다른 직업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된다.

장수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내 환경 개선과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 홍삼,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과 공동 개발 글로벌 유통확대업무 협약체결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단장 김정배)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인 피티 레제키 투주 일람(PT. REJEKI TUJUH ALAM)과 홍삼·인삼 및 천연물 등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공동 개발과 글로벌 유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진안 홍삼의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한 동남아 시장 확대를 목표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김정배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장과 엔당 피티 레제키 투주 일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각자가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품 공동 개발, 수출·유통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은 진안 홍삼 브랜드를 활용한 제품 개발과 인도네시아 수출 관련 업체 연계 지원 △피티 레제키 투주 일람(PT. REJEKI TUJUH ALAM)은 천연 벌꿀 등 기능성 식품 소재의 생산·공급과

함께 현지 시장 정보 제공 및 유통망 연계 등이다. 특히 양측은 진안 홍삼·인삼과 인도네시아 천연꿀을 결합한 공동 제품 개발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협력 범위에는 진안 홍삼·인삼과 인도네시아 URAY(우라이) 천연벌꿀을 결합한 'K-홍삼 x 인도네시아 URAY 하니' 공동 브랜드 테마 활용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와 협력 검토가 포함되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차별화된 콘텐츠 구성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은 지난 23일 '2025년 하반기 퇴직 공무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장수군, 퇴직 공무원 정부포상 전수

장기간공직 헌신한공로기려

장수군은 지난 23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퇴직 공무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수식은 수십 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다 명예롭게 퇴직한 공무원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마련됐다.

퇴직 공무원 정부포상은 재직 기간에 따라 △33년 이상은 근정훈장 △30년 이상 33년 미만은 근정포장 △28년 이상 30년 미만은 대통령 표창 △25년 이상 28년 미만은 국

무총리 표창 △10년 이상 25년 미만은 장관 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훈격별로 녹조근정훈장은 조용호 전 장수읍장과 최길한 전 산서면장이 수상했고 옥조근정훈장에 성영록 전 국가유산 팀장, 근정포장은 김홍열 전 민원과장이 수상했다. 이들에게는 훈·포장과 함께 증서와 부상이 수여됐다.

장수군은 이번 포상을 통해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한 공직 수행이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마을여행 수익 활용한 주민 자치복지 확대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사업, 마을 돌봄 공동체 기반 모델 확산

진안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사업'을 통해 관계 인구 확대는 물론, 마을 수익을 주민 돌봄으로 환원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델을 현실화하고 있다.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은 마을 고유의 자원과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체험형 여행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과 마을 간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에 환원함으로써, 관광이 곧 공동체 유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의

미가 크다.

이 같은 성과는 이미 마을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 2025년 1월, 진안읍 외사양마을에서 마을 수익을 활용해 마을 주민 38명에게 매달 5만 원씩 자치연금 지급을 시작했다.

또한 2025년 11월부터는 진안읍 삼가막 마을에서 촌스런 마을여행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을 활용한 연중 마을 공동급식을 추진하며 마을 돌봄 모델의 체계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진안군은 앞으로도 마을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 모델을 발굴해 관계 인구가 확대되고, 지역 공동체가 회복 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의회, 제381회 임시회 개최

장수군의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8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받고,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각종 정책과 사업이 현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남수 의원은 '천천면 복개하천 복

원 필요성과 관리 방향 제언'을 주제로 발언하며, 하천 복원을 통한 자연환경 회복과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회 의원은 '지역적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의 개발 촉구'를 통해 장수군민의 고유한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정책 추진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환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알차게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장수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군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친근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제30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개최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통합돌봄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한 이투라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동창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군민의 결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활안전과 편익,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27일부터 29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

/진안=전길빈 기자



중앙청과 이원석 대표, 4년 연속 김제시에 500만원 기탁

김제시는 26일 중앙청과 이원석 대표가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4년 연속으로 500만원을 기탁해 누적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중앙청은 1989년 창립된 도매시장 법인으로 서울 가락시장에 있으며, 농산물 가격 안정화와 유통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원석 대표는 2025년에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신입 회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올해에는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기부하게 되었다"며, "모금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꼭 아이돌봄센터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후 매년 큰 금액을 기부해주신 이원석 대표에 감사드립니다"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공돌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유)나눔푸드, 진안군에 장학금 300만원 기부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유)나눔푸드에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김치훈 대표는 "기업의 이름인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진안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라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집중하여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전춘성 이사장은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갖고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유)나눔푸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며, "기부하신 소중한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내실을 기하겠다"라고 답했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뿐 아니라,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관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도움받던 피해자에서 희망의 후원자로 '나눔의 선순환'

정읍 사회에 감동 주어

4년 전 끔찍한 범죄 피해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한 가정이 자신을 지켜준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에 보답하고자 후원자로 돌아왔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이 아름다운 '나눔의 선순환'이 정읍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과 사단법인 정읍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23일 특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상훈 정읍지청장과 남상지 담당 검사, 김양곤 이사장이 참석한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범죄 피해자 이선행(가명) 씨였다.

세 자녀의 아버지인 이 씨와 센터

의 인연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씨의 가족은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 피해를 겪었고, 이 씨 본인 또한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질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한순간에 무너진 일상 속에서 이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었다.

정읍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 씨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경제적 지원은 물론 의료비,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현재까지 재활 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씨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



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이날 100만원의 기부금을 센터에 전달했다.

그는 "센터의 변함없는 지원 덕분에 가장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다"며 "같은 아픔을 겪는 피

해자와 그 가족들의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피해자였던 내가 또 다른 피해자를 돕는 계기가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IWPG 전주지부, 2026 신년워크숍 개최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G12국은 지난 24일 전주시 만성동 소재 세미나실에서 신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주, 익산, 군산, 정읍지부 관계자들이 모여 참석해 새해를 맞아 IWPG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지부별 목표를 발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IWPG가 추구하는 평화의 가치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시민과 함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각 지부의 활동 현황을 공유했다.

IWPG G12국 전주지부 백순선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쟁 휴전 선언 이후 57년 만에 G20(2010년) 선진국 대열에 오른 위대한 나라"라며 "그 이면에는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원동력이었다"고 전했다.

/전북타임스 문화부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 대한노인회 삼례읍분회 공로패

어르신들 생활 불편 해소 공로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이 26일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삼례읍분회 정기총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로패는 이 위원장이 평소 노인 인권 보호와 권의 신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과 예산 확보 등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온 공로

를 인정받았다.

이 위원장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경로당 운영 여건 개선 △노인 일자리 확대 △경로당 급식(점심) 도우미 지원 △경로당 미설치 지역(사각지대) 어르신 맞춤형 지원 등 생활 밀착형 복지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운봉읍체육회, 전국소년체전 입상 학생에 장학금 전달

지난 22일 남원시 운봉읍은 제5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운봉읍 출신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을 축하하며 운봉읍체육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은 여중부 높이뛰기 부분 금메달 수상자 운봉중학교 '유윤아' 학생, 여초부 높이뛰기 부분 금메달 수상자 운봉초등학교 '문예원' 학생, 남초부 테니스 부분

은메달 수상자 운봉초등학교 '김진홍' 학생으로 총 3명이다.

장학금 전달식은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으며 문광호 운봉읍체육회장, 체육회 임원, 신동열 운봉에향회장, 손원철 운봉이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하여 학생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학업 의지를 돕기 위해 각 3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수상학생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민주평통자문회의 무주군협의회, 온열 찜질기 기탁

찜질기 300개 1,350만원 상당 전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주군협의회는 지난 22일 무주군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온열 찜질기 3백 개(1,350여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유상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주군협의회 회장은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과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사하기

위해 온열 찜질기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에 참여하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통자문회의 무주군협의회는 현재 제22기 활동(2025-2027)을 진행 중으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정책 건의, △지역사회 교류 등의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고창군 자원봉사센터·홍가네 네이츠클로버, 이웃돕기 성금 기탁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총 520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고창군 자원봉사센터는 300만원, 홍가네 네이츠클로버(홍성태 씨와 자녀 홍가희, 홍가람, 홍가영, 홍가연씨)는 220만원씩의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추운 겨울철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마련됐다.

이는 전북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여한 김옥 고창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현장에서 봉사하며 나누는 이웃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임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고창군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Advertisement for 'We do it together!' campaign. It lists items to avoid: disposable cups, straws, no!; thermoses, multi-use items, ok!; plastic bags, no!; reusable bags, ok!; disposable napkins, no!; disposable spoons, forks, no! The text says '-1회용품 사용 줄이기-' (Reduce single-use items).

〈一事一言〉



지역 의사 늘려야 지역 균형 발전도 가능(1)

안중주
보건학 박사

지역 소멸이라는 다소 과장된 말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말하는 이들이 많다. 정치인도, 전문가도 그런 말을 즐겨 한다. 물론 소멸이라는 말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 한때 팽팽했던 풍선에서 바람(인구)이 빠져 풍선 모습이 쪼그라들었다고 하는 비유가 적절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명 정부는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도 많아져 지역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으로 수준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임신부가 마음 놓고 출산하고 위급한 상황 때는 제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야 떠났던 청년이 돌아오고, 떠나려 마음먹었던 이들도 눌러앉고, 지역을 새로운 삶의 터로 만들려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노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어떤 곳은 반경 십리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병·의원이 없다.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가치인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곳에서 눌러 앉겠다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당연지사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지병이자 난치병이기도 하다.

오늘도 의사 집단은 영화 제목으로나 어울릴 만한 '의사 불패'를 부르대고 있다. 이들은 정부를 사이에 둔 국민과 몇 번 치른 대회전에서 늘 승리해온 것을 훈장

처럼 자랑한다. 가까이에는 윤석열 정부 때, 국민들은 정권의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로 인해 또 한 번 패배를 맛보았다. 그리고 여전히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수 없으면 죽는다. 가족과 친구들과 '절대로 아프지 마세요'라는 말은 안부 인사로 나누었던 서글픈 기억을 또렷이 간직하고 있다.

의사 수 적정하게 늘리기를 지난 30년간 사실상 못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히포크라테스의 가운' 대신에 '영구면허의 갑옷'을 입고 국민한테 '칼을 휘두르는' 의사집단의 도덕성 붕괴,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역대 정부의 무능, 모래알 같은 환자와 왜소한 환자단체의 미약한 저항력, 언론의 소극적 태도 등이 얹히고설켜 이런 오욕의 역사를 만들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 번 의사들과 대결해야 할지도 모를 벼랑 끝에 서 있다. 앞서 말했듯이 지역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려면 의사들을 지역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지역 의사 정원 확대를 통한 지역 의사 정원 확대이다. 철저하고 정확한 현실 분석과 전략으로 무장해 의사 집단이 반대 핑계를 댈 수 없게끔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해 12월 30일 2040년에는 부족 의사 수가 5700~1만 1136명이라고 발표하면서 의사와 정부·국민 간 대결이 시작됐다.

정부는 추계위 결과 발표 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추계위 결과를 보고 받았고 1월 13일 3차 회의에서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을 전부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여부와 의대 미설치 지역 신설 의대의 정원·배출 시점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 정원 증가 폭 상한 설정 ▲2027~2031학년도까지 5년간 동일 정원을 적용하고,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삼은 뒤 2029년에 다음 수급 추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3일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이 분석한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해 의사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2035년경에 3161명의 의사 과잉이 될 것이라고 추계위 결과와 정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정연은 추계위가 사용한 모형의 부적합성과 AI(인공지능) 생산성 향상(30~50%)의 미반영 등을 지적하며 자신들은 의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연 2303시간)과 미래 환경 변화를 반영한 모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이런 발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봉니를 부리고 이를 토대로 또 정부·국민과 전면전을 벌이기 위한 말자락 같기거나 앞으로 정부가 최종 결과를 발표할 때 자신들의 주장을 더 강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

의협의 이런 전략에 추계위에 참여한 환자·시민·노동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민주노총, 경실련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국민중심 의료 개혁 연대회의'는 최근 공동 입장을 성명으로 내어 "의료계는 추계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끝까지 밀어 넣어 추계의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 놓고, 이제 와서는 '근거가 없다'며 결과 전체를 흔들려는 전형적인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의 추천으로 추계위에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연구전문가로서 참여한 고려대 의대 정재훈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형식적인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하게 의식한 위원회 구성의 아쉬움과 함께 장기 추계에 시계열 모형을 선택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우리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만 활용되어 있어 앞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제하여, 정교한 추계가 가능한 표준 데이터셋을 미리 구축해 두어야 한다"라고 밝혔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B/C 1.03·국민 지지 82.7%...전주올림픽의 가능성

전주 하계올림픽이 '가능성'의 문턱을 넘어섰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 1.03을 확보하며 경제성이 공식 입증됐고, 국민 82.7%가 유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전주올림픽이 숫자를 넘어 공감과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도시가 주도하는 하계올림픽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오랜 물음에 대해, 전주는 경제성과 국민적 지지라는 두 축으로 분명한 답을 내놓았다.

이번 결과의 의미는 작지 않다. B/C 1.03은 전주올림픽이 특정 지역의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투자 가치가 충분한 프로젝트를 말해준다. 무엇보다 신축 경기장 건설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 개보수와 임시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줄인 점은 과거 '과잉 투자 올림픽'의 그늘을 의식적으로 벗어나려는 시도다.

총 51개 경기장을 도내와 타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전략 역시 IOC의 '올림픽 아젠다 2020+5'가 강조하는 지속가능성과 궤를 같이한다.

여론 지지도는 전주올림픽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전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결과는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국민 공감대' 항목에서 전주가 뚜렷한 경쟁력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과거 보스턴과 함부르크가 국민 지지 부족으로 유치를 포기했던 사례를 떠올리면, 이번 조사 결과는 전주가 국제적으로도 신뢰받을 수 있는 개최 후보지임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올림픽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압도적 지지는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전주올림픽의 진정한 가치는 '분산 개

최'에 있다. 전주권을 중심으로 하되 연대 도시와 역할을 나누는 방식은 수도권에 집중돼 온 대형 국제행사의 구조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올림픽 무대 위에 올려놓는다.

이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지방도시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대한민국 발전 모델의 전환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실력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통·관광·스포츠 인프라를 광역적으로 연계해 지역 간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정부 승인과 IOC와의 지속 대화 과정에서 제기될 재정·환경·운영상의 우려를 차질 없이 보완해 나가야 한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대회 이후 시설의 사후 활용 계획, 지역 주민과의 소통 체계는 유치 성패를 가를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전주올림픽은 크고 화려한 올림픽이 아니라, 절제되고 공감받는 올림픽이어야 한다. 경제성과 국민 지지라는 두 개의 토대를 딛고, 전주올림픽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지방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북이 증명해 보일 때 전주의 전북은 세계 시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면서 매력적인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날의 영광을 위해 전북도민은 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일치단결해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라는 국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문화재 열전

전주이씨칠산군파종중문서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문서류
-지정일 - 1982년 8월 30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제민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226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익산지국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정읍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수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서울의 겨울 / 한강

어느 날 어느 날이 와서
그 어느 날에 네가 온다면
그날에 내가 사랑으로 온다면
내 가슴 온통 물빛이겠네, 네 사랑

내 가슴에 잠겨
차마 숨 못 쉬겠네
내가 네 호흡이 되어주지, 네 맥장 입술에
벽산 숨결이 되어주지, 내가 온다면 사랑아,

을 수만 있다면
살얼음 흐른 내 뺨에 너 좋아하던
강물 소리,
들려주겠네

시인 약력 : 1970년 광주광역시 출생. 연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시인으로, 1994년 소설가로 등단했다.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교수다.

'한국소설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제 29회 '이상문학상 대상' 등을 수상했고 2016년 5월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했다.

'몽고반점', '소년이 온다' 등의 작품을 다수 남겼고 그 영향으로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아시아 여성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등극했다.

전북타임스신문

홈페이지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구독신청 282-9600

전북타임스신문은 독자여러분을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2026 신년 설계

임실

“2026년은 완성의 해, 미래 10년의 기틀 다지겠다”



심 민 임실군수는 “올해는 완성이야 할 과제가 많은 매우 중요한 해”라며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일관성을 지닌 행정을 통해 2026년 성운성공(成允成功)의 각오로 군정 주요 핵심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 군수는 “지난해 918만명이 방문하는 큰 성과를 거둔만큼 올해는 반드시 천만관광 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자원 홍보와 역점시책사업에 온 힘을 쏟겠다”며 “대한민국을 흐리는 공격적이고 전방위적인 홍보로 사계절 축제 도시, 이제 임실의 시대를 널리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심 군수는 “육정호, 치즈테마파크, 세계명견 테마랜드, 성수산과 사선대를 잇는 관광벨트를 완성하고 농업지역으로서 농업인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쓰고, 외국인 근로자 유치규모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 정책에 힘쓰겠다”며 “특히 홀스타인 품종보다 원유 품질이 월등히 우수한 저지종 품종으로 개량, 기능성 숙성치즈와 고품질의 유제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차별화함으로써 임실치즈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남녀 사우나 시설을 갖춘 목욕탕과 로컬푸드 직매장, 영화관 등이 구비된 임실 정주활력 센터 건립에 힘쓰겠다”며 “특히 지난 8월 착공한 오수면 80세대, 관촌면 120세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임실읍 120세대 임대 아파트도 내년 착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심 군수는 “무엇보다 우리군 숙원사업인 KTX 임실역 정차에 대해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 체결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 임실치즈테마파크 대규모 장미원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장미꽃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축제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반드시 천만관광 임실시대의 포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심 군수는 “지방 소멸의 시대를 극복하고, 소란스럽고 어려운 시기 손을 잡고 함께 극복하는 데 제가 앞장서겠다”며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군민 행복을 위해서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실군 민선 6~8기 일관행정 ... '성운성공' 완성

임실군이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이어온 일관된 군정 기조를 바탕으로, 2026년을 군정 핵심사업을 완성하는 '성운성공(成允成功)'의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주요사업을 강력히 추진한다.

심 민 임실군수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금까지는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온 시간이었다면, 이제 그 결실을 완성해야 할 때”라며, “강인한 생명력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 2026년을 맞아 군민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 군 역시 한단계 더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2년, 임실군정의 방향은 단순하면서도 분명했다.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정, 그리고 일관성 있는 군정 운영이다. 이러한 기조는 각종 수치와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통해 성과로 입증되어 왔다.

군은 지난해 ‘임실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연간 방문객 918만명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며 천만관광 시대의 도약 가능성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에 힘입어 올해는 5월 장미축제를 시작으로 사계절 관광 축제를 완성해 전국이 주목하는 ‘관광도시 임실군’으로의 도약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6년 반드시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 경쟁력있는 명품 관광벨트 구축으로 천만관광 임실시대 완성

임실군은 육정호-임실치즈테마파크-세계명견 테마랜드-성수산-사선대를 잇는 명품 관광벨트 구축에 속도를 내며 2026년을 ‘천만관광 임실시대’의 출발점으로 선언했다. 핵심 전략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 강화다.

육정호 일원을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로 연계, 국사봉-1나레산을 잇는 3.5km 케이블카를 우선 추진하고, 구 운암대교 인근 휴양문화시설(호텔)을 건립하는 사업 공모를 추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육정호 봉어섬 내 70m 높이 친환경 목조건방대와 봉어섬-용운마을을 잇는 370m 생태탐방 교량, 하늘바우 생태공원, 자라산 관광정원 조성, 육정호 순환도로 개설 등 신규사업도 더해지며, 육정호는 ‘보는 관광지’를 넘어 ‘체험하고 머무는 관광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2026년 5월 대규모 장미원에서 처음 열리는 ‘2026 임실 장미축제’를 시작으로, 플레이랜드·치즈아일랜드·관광호텔 건립을 통해 가족 중심의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오수의견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세계명견테마랜드와 핼케이션·펫토피아 파크 관광기반 조성 및 반려동물 학습센터 건립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은 임실을 전방 유일의 반려문화 진화 관광도시로 차별화하는 핵심 사업이다.

성수산은 산림레포츠 시설과 휴양시설 보안을

통해 치유·힐링 명소로, 사선대는 청소년수련 기능을 강화해 체험·교육형 관광지로 육성한다.

또한, 관광진흥 사업에 군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 자원인 육정호와 임실N치즈 축제 등을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행사로 918만 명이 임실을 찾은 만큼,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천만관광 임실시대 도약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점검, 추진 예정이다.

임실N치즈축제는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3대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명성을 올리며 61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했고, 겨울 대표 축제인 산타축제도 32만명이 찾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 함께하는 희망농업 ... 외국인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 운영

임실군은 군정시표인 ‘함께하는 희망농업’ 구현을 위해 농촌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 기반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6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규모를 역대 최대인 356명으로 확대하고, 3월 임국과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전용 기숙사(90명 규모)를 3월 준공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안정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농작업 대행단 운영과 공동방제,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 추진해 고령농과 영세농의 농작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귀농·귀촌, 스마트팜, 농업미생물배양 센터를 연계한 미래 농업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신안리 옛 임실서초 부지에는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을 조성하고, 오수면 옛 봉천초 부지에는 소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도시민 유입과 청년농 정착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농생명 산업지구와 연계해 홀스타인보다 원유 품질이 우수한 저지종 젖소를 본격 육성하고,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가공·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임실N치즈 산업을 양적 성장에서 프리미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 활력있는 지역 경제 ... 민생회복과 정주기반 확충

농업과 산업 기반 강화와 더불어, 군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지역경제 회복 역시 군정의 중요한 축이다. 군은 생활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1월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이번 지원은 지역 상권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지역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한편, 임실군은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임실읍 120세대, 오수면 80세대, 관촌면 120세대 등 총 320세대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남녀 사우나·로컬푸드 직매장·영화관을 갖춘 임실 정주활력센터, 공모 선정된 이도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거·생활 SOC를 확충하고, 도심 노후주거지 개선과 주차장·보행환경 정비로 도시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군의 오랜 숙원인 KTX 임실역 정차도 가시권에 들어섰다. 올해 초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승강장 개선 실시설계를 거쳐 2028년에는 임실군민과 관광객이 임실역에서 KTX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 체감형 복지와 사회 복지 안전망 확대

지역경제의 회복이 군민의 삶 전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임실군은 고령화·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해 ‘찾아가는 맞춤형복지’를 중심으로 군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이·미용료 지원, 기초연금 지원 등 어르신 맞춤형복지 시책을 촘촘히 추진하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보건·방문요양·일상생활 지원을 통합 제공,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출산·육아·다문화정책도 강화된다.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영유아돌봄,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핵심 정책이다.

▲ 품격있는 교육·문화 ... 배움과 문화가 일상 이 되도록 다양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촘촘한 복지와 안정적인 정주 여건 위에서, 임실군은 교육과 문화·체육을 지역의 미래 경쟁력으로 보고 투자를 확대한다.

봉황인재학당, 교육발전특구, 농촌유학, 장학사업 등을 통해 지역에서도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복합문화시설과 폐교 활용 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임실교육지원청·원광대학교와 협력하여 반려농리 학습센터 및 기숙사 건립을 통해 반려산업 맞춤형 종사자 육성 및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임실교육지원청과 임실 동중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문화복지 향상, 부족한 주차장 확보 등에도 노력한다.

아울러, 볼링장과 스포츠센터를 겸비한 국민체육센터, 장애인지원센터를 포함한 반다미 체육센터, 36홀 규모의 임실 파크골프장, 야구장 조성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